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

성산읍 신양리 김옥자, 이순덕 해녀 - 1

해녀: 김옥자(1940년생, 81세, 신양리 고향. 20세결혼, 4남매를 둠),
이순덕(1945년생, 75세, 신양리 고향, 결혼. 2남2녀를 둠)

인터뷰 일자 : 2019.

인터뷰 : 좌혜경(Q로 기록),

해녀 : 김옥자(A로 기록), 이순덕(B로 기록)

A : 신양리에 사는 고성 신양 어촌계의 김옥자입니다.
Q : 올해 연세가 어떵 되셈수과?
A : 호적 나이론 팔십(80)이고, 원 나이론 팔십하나(81)
Q : 원나이로는?
A : 예
Q : 그러면 천구백사십년생(1940년생)?
A : 예
Q : 순덕이 언니는
B : 저도 고성 신양리 어촌계 해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이수다게.
Q : 연세는 칠십
B : 다섯마씸
Q : 칠십다섯(75)이고, 사십오년생(45년생) 될거다 예
B : 예, 예
Q : 두분 다 여기서 태어나고
B : 여기 결혼허고
Q : 여기서 결혼하시고예. 여기는 엄청 좋아지셨잖아예.
A : 예
B : 예. 이제야 좋아져수게.
Q : 여기 해녀분은 몇분이나 됨수과?
A : 해녀분이 지금 물질하는 해녀분이 고성.신양 삼십명(30명) 한 칠십명(70명)?
B : 응. 다허민[1)]
A : 한 칠십명(70명) 될 거우다. 전에는 한 백오십명(150명) 되수다게. 경헌디예 나이들언에 다 주저앉아분 사람도 있고, 또
B : 배우는 사람 엇어부난[어서부난]
A : 배우는 사람 엇언에양, 본데 허던 사람들이게 다, 더러 죽어불고, 경해부난 지금 물질하는 사람이 한 칠십명(70명)쯤 될 거우다.
Q : 그러면은 고성바다하고, 고성은 바다가 없잖우까?
A : 예. 고성 신양 그냥 바당 헙니다게.
Q : 거믄 바당이 어디서부터 어떵 될거꽈 여기는?
A : 저 일출봉 밑에 백끼 엇우과? 그 백끼로 시작해그네 요 온평리 가는 경계까지

1) 다허민 : 모두 하면

Q : 온평리까지?
A : 예. 온평리 경계까지
Q : 백끼?
A : 예. 일출봉 밑에가 그 누룩빌레가 백끼우다. 광치기
Q : 아, 광치기
A : 예.
Q : 요즘 뭣들 잡으셤서마씸
A : 요샌예. 소라도 산란기 때가 되부난 못잡고, 성게도 알을 싸네양 지금 산란기로 핸에 못잡안에 바당은 금해수다.
Q : 예.
A : 두어둘(2달) 금했다기네 이제 고동부터 잡음시작 헐 거우다게.
Q : 구월(9월) 초부터예
A : 예
Q : 음. 산란기 때는 이 소라라든지 성게가 어떵 알아집니까?
B : 알 싸는거 알아집니께.
Q : 어떵 알아집니까?
B : 하얗게예, 이게 소라에서도 하얗게 알 싸고, 거 막 전복이나 소라나 성게도 막 하얀 막 그
Q : 알을 막 싸면
B : 예 싸는 거 막 알아집니께
Q : 소라는 수컷과 암컷이 있는 거꽈?
A : 예
B : 아맹해도 잇이난에[이시나네] 허허허허
A : 있주게. 잇이난에 그거 암컷들은 수컷
B : 새끼차고 나고 아닌가마씀
A : 망사리가예. 바로 망사리가 헤영헌 뜬 물 같은 물이 형편엇이 나옵니다. 그것이 물에 떴다가예. 바로 바당에서 그 새끼치는 것이 아니고, 곶디 이제 곶으로 붙엉, 곶디서 이제 소라가 만들어졍 밖으로 나가마씀. 성게도 마찬가지고
Q : 아, 그게 자기네가 만들어졍예.
A : 예. 지금 바다에 거는 전부 다 지금 산란기 때우다. 오만 이제 문어나 이제 소라, 전복 헐 거 없이 전부 다
Q : 전부
A : 예
Q : 문어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산란헙니까?
A : 문어는예. 이제, 지금 막 알 쌍 들어앉는 거 있고, 또 알 싼에 이제 나완에, 이제 문어는 알 싸나민 죽는 것도 하고
Q : 게메게
A : 예. 혼번, 예 죽는 것도 하고[2]양
B : 알 싸불면 문어는 죽어분덴 허는 거 아니꽈?
A : 예. 것도 살아 붙어 있는 건예. 혼 동안 살이 안 올라. 거죽허고 그자 거시기만 붙었다그

2) 하고 : 많고 => 하다 : 많다

네 ᄎᄎᄎᄎ[3] 살아나는 것도 있고, 우리가 잡아보민. 게난 그것이 이런 조개방울 닮은거 엉덕에 다 돌 자갈덜을 모여당 놩 경허연 거기서 알을 싸. 알을 싸민예. 멧[4]을 짓엉 싸면 은 그것이 딴 고기들도, 문어가 알 싸노민 고기덜 데니당 거 다 먹어불지 안 헙니까? 거 난 거 실컷 무라고양 멪날 메칠 굶어기네, 멪일을 굶어기네 그 알을 지키는 셍입니디다 게. 경허난에양 이 알 싸나민 그것이 알, 그 알이 싸그네 그것이 문어가 돼 가가민 에미 덜은 죽는 것이 많아마씀

Q : 거믄 문어도 암컷 수컷이 있다는?

A : 예. 암커 수커 이십니다. 다 수커는 알은 못

Q : 못 싸고

A : 예. 못, 이제 못싸고

B : 무신거라도 암컷, 수컷이 잇이난 새끼차멍

Q : 게메예

B : 나오는 거 아니꽈? 이치가

Q : 성게도 마찬가지고예?

B : 예. 성게도 마찬가질 거우다.

Q : 성게도 알을 쌉니까?

A, B : 예

B : 아유, 망사리

Q : 알은 그 속에 있는데

A : 속에 알이 있어도

B : 막 나왕 하얀 거 막, 성게 딱살 우에 막 하얗게 허곡, 쌀 튼물ᄀᆞ치 막 망아리에 잡아노민 막 물이 헤영헙니께.

Q : 전복은 암컷, 수컷이 있고예

B : 예.

Q : 다 암전복, 숫전복예

B : 소라도 암컷, 수컷 다 잇우다.

Q : 여기 그 신양리 바당은 거 여들이 많수과?

A : 예게. 다 바당은 좋수다.

B : 바당 제일 좋덴 헙니다.

A : 막 이 서쪽 안으론예. 양어장도 엇어노난 오염도 안되고 허난, 감태도 난에양 바다에 막 여에 미욱ᄒᆞ고[5], 이런 양어장 잇인디는 그 락스물을 씻정 ᄂᆞ리는[6] 것 따문[7]에 오염이 됑양, 이쪽으로는 요 감태도 잘 못 볼정도로 허고, 이짝 섭지안에 바당은 막 좋수다

Q : 구젱기는 많이

A : 예. 구젱기[8]도게

Q : 여에

---

3) ᄎᄎᄎᄎ : 차차차차, 차츰차츰

4) 메 : 씨앗을 싹을 피워 옮기어 심으려고 가꾸어 기른 모종이나 구덩이에 묻은 호박이나 수박씨 따위.

5) 미욱ᄒᆞ고 : 넘실거리고 => 미욱ᄒᆞ다 : 주로 밭에 작물이 빈틈없이 꽉차게 잘 자라 넘실거리는 상태이다.

6) ᄂᆞ리는 : 내리는 => ᄂᆞ리다 :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다

7) 따문 : 때문

8) 구젱기 : 소라

A : 예. 여에 가민 짚은[9] 디 가민게, 고동도게, 잡는 사름은 혼 백키로(100kg)씩, 혼 칠팔십 키로(7,80kg) 경 잡고, 우리고찌 첨 늙은 할망덜은 혼엇이[10] 못 잡주마는, 이 젊은아덜 야네덜은 가민 막 고덩덜 하영 잡앙옵니께.

Q : 고동은 어떤 데 경 많이 남수과? 그 여에.

B : 예. 보통은 여예 나곡, 등돌알[11] 같은 디서 잔잔한[12] 건 곱았당[13] 크면서 나오고

A : 건디 소라가 철에 따라 이제 봄에는 이제 첨 이 소라덜이 있다그네[14] 모살[15] 있는더레[16] 나오그락그네[17]양. 지네덜끼리 모다들으멍 허는디, 또 겨울에 들어그네 이제 들어가는, 고냥더레[18] 들어가는 시기가 잇어. 엉덕[19] 속더레. 경허난에 베끗디 나와그네 허면 우리도 잡기가 좋아그네 번지룽헌[20] 디서 허믄 잡아 첨 소라를 많이 잡는디 이런 머흘[21] 밧디 가민양 머흘알로 들어가는 그 시기가 잇입니다게. 경허연 우로 나올 땐 나오고. 경해도 소라는 암컷 수컷을 모르는디, 전복은 암컷 수컷 모양으로도 알아저.

Q : 모양으로?

A : 예. 우리 일본 가민예. 다 일본 간 물질을 해봐신디, 일본은 가민 다 암전복. 숫전복은 없고

Q : 암전복이

A : 베질베질[22].

Q : 두껍고?

A : 베질베질허우다. 납작납작

Q : 아, 납작납작?

A : 예. 우무룩헌[23] 건 숫전복

Q : 숫전복이고

A : 예.

Q : 그 전복인 경우는 빗창을 어떤 데로 대야 될 철이꽈?

A : 될 수 시민 두꺼운 데로

B : 추례로

A : 영 돌아질 때는 두꺼운 그 저짝 두꺼운 쪽으로 강 빗창을 대영 허고, 것이 돌아지는 쪽도

---

9) 짚은 : 깊은 => 지프다 : 깊다
10) 혼엇이 : 한없이. 별로. 정도에 지나치게
11) 등돌알 : 등돌아래. ① 등돌 :둥그스름하고 매끈한 큰 돌로 드는 힘을 겨루는 데도 쓰이고, 짚 따위를 두드릴 때 받침으로도 쓰는 돌 ② 알 : 아래
12) 잔잔한 : 자잘한. 여럿이 다 가늘거나 작은
13) 곱았당 : 숨었다가 => 곱다 : 눈에 띄지 않게 몸을 감추다. 숨다
14) 있다그네 : 있다가
15) 모살 : 모래
16) 있는더레 : 있는 데로, 쪽으로
17) 나오그락그네 : 나와서
18) 고냥더레 : 구멍으로. ① 고냥 : 구멍 ② ~더레 : ~이 있는 데로, ~쪽으로, ~에로
19) 엉덕 = 엉 : 주로 바닷가 절벽 밑에 돌들이 안으로 파여 굴처럼 되어 거친 곳. 낭떠러지
20) 번지룽헌 => 번지룽ᄒᆞ다 : 바닥 따위가 편편하고 거칠 것 없이 시원하게 탁 트이다. 걸리적거릴 것이 하나도 없다.
21) 머흘 : 바다 밑에 깔린 자잘한 돌멩이. 밭에 띄엄띄엄 박혀 있는 돌멩이나 밥에 섞인 자잘한 돌멩이 따위.
22) 베질베질 : 바닥에 물디 거의 잦아 있는 꼴 => 베질베질ᄒᆞ다 : 물이 거의 잦아 바닥이 들어날 정도이다.
23) 우무룩헌 : 바닥보다 밑으로 패여 오목하게 되어 있는 => 우무룩ᄒᆞ다 : 오모록ᄒᆞ다의 큰말

얖은디로 가그네

B : 이렇게 돌아질[24] 때도, 요짝쪽으로 돌아질 때도 있고, 등으로 영 행 돌아질 때도 있고 헙니께. 경허난 그것에 따라서 빗창을 선택

A : 그거 붙어그네 허는거예 따라그네 빗창을 대게 됩니다게.

Q : 처음 물질 헐 때 그걸 누구한테 배웁디과?

A : 아이고, 남 사연을 물으민 말 못헙니다. 나가 열세살(13살)부터 물질을 해수다게. 그때 학교 육학년(6학년)예. 학교 육학년이 안됐구나. 그때가 사학년(4학년)쯤에 나가 물질을 헌 거, 이걸 똑 해녀가 되겠다고 허연 헌 것이 아니고, 이거 우리, 이거 본데 우리 나가 이디서 나고 시집도 이집을 와져십디다. 지금. 경허난 이것이 바당 아니꽈? 바당이난 더우민 학교 갔다와그네 물에 가는 거라. 강 헤엄치민 그디서 저 구젱기 닥살도 데껴그네 가그네 물 소곱에 강 그거 심어오곡[25]. 경허멍 헤엄을 치당보난양 자연적으로 물질이양, 베와진 겁디다게. 경허난 열다섯살(15살)부턴 이제 국민학교 졸업할 그 당시부턴 돈벌일 해수다. 예, 경핸

B : 옛날엔 메역벢인 돈 헐 거 엇어

Q : 당시는 뭐, 미역?

A : 예?

B : 미역벢인 그때는 돈 할 것이 엇어수다

A : 미역을 해낸에 그 때는 큰, 지금 전복, 소라가 문제가 아니라

B : 그때는 미역벡인 돈이 안 가수다

A : 메역으로 해그네 밭도 사고 했주

Q : 그 작업해난 거 굴아봅서

A : 경허난 그때는예 물질을 이제 메역을 허게 되민 매일허는 것이 아니고, 날을 정했당 어느 때부터 멬일날은 메역 허치[26]를 허겠다 허민양. 지금은 오토바이나 있저. 그 모살[27]에양. 짐을 져, 구덕[28] 지곡 행, 두렁박 지곡 행, 달리기라. 앞이 강 들어기네 혼푸데[29]라도 더 캐젠. 그추룩 허멍 핸에

Q : 미역은 얕은 바다에 있잖아예

A : 짚은 디도 있고, 얖은 디도 있고

B : 아우, 짚은 디도 막, 사름 굴려[30]기네예. 해녀 굴립니께. 막 짚은 디 잇인 거 상군덜만 나 중에는 강 허고

Q : 경허영 그거 비어그네

A : 그거 비어그네 이제 몰려[31]그네 거 풀민[32] 것이 목돈이 되어. 목돈이 되민 그걸로 허여 그네 밭도 사고

Q : 그때 미역이 몇 월달에 했지?

A : 사월달(4월달)에. 사월달(4월달)에 허민

---

24) 돌아질 => 돌아지다 : 과일 따위가 나뭇가지에 매달리거나, 물건들이 높은데 매달리다.
25) 심어오곡 : 잡아오고. 붙잡아오고
26) 허치 : 허채
27) 모살 : 모래
28) 구덕 : 대로 걸어 만든 조금 큰 바구니
29) 혼푸데 : 한포대. 푸데 : 포대
30) 굴려 : 가려 => 굴리다 :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고르다
31) 몰려 : 말려
32) 풀민 : 팔면

B : 삼사월(3,4월), 오월(5월)까지 메역허치 헙니께.

A : 예. 이월덜(2월달)엔 물이 차, 막 차붑니다[33]게. 찹고 그땐 졸아[34]. 게민 삼ᄉᆞ월(3,4월) 나민 허치험 시작허여. 게민 ᄉᆞ월달(4월달)꼬지 나. 우리 큰년[35]이 ᄉᆞ월달(4월달)에 나신디 애기 난에 닷새(5일)만에 간 메역을 ᄌᆞ물젠 허난양. 메역은 봐져도 물에 터비어[36]. 아직 궂인물[37] 궤도 안헐 때게, 물질 고동 이디 시방 고동 잡듯이 그땐 메역을 허난양. 그 시기 놓쳐불민게 돈은 못 벌 거고허난 애기 난 닷새(5일)만이 간에, 큰년 난에 닷새(5일)만이 간 그 물질을 해연 허난 메역 구빌 못 가쿱디다게, 터비언에. 그추룩 허멍도 허연에게게도 그걸로 허영 아이덜 키우고

Q : 경허믄 누게가 사레[38] 와마씸?

A : 예

B : 예. 마을에서 그거 단체로 이제 조합에서 허는 식으로. ᄑᆞ는 날이 잇엉 막 해영 딱 묶엉 재경 이만큼씩 방에 놨당, 거 ᄑᆞ는 날이 잇엉 가그네덜 막

Q : 수협으로 계통은 판매 안햄저예?

A : 그때는예. 무사 그때도 수협으로도 이제 받아노민 가져가는 수도 있고, 그땐 개인 계통으로 하영 풀아수다게. 예. 저 이 메역 ᄌᆞ물때는 어촌계를 이제 어촌계 말대로 어촌계에서 가렌 허민 가고, 허치허렌 허민 허고 했주마는, 이제 파는 거는 이 수협으로 받아놔그네 수협으로 넘기고, 그추룩 허멍 해수다. 건디 그때는 자유판매가 많이 해십주게.

Q : 으, 자유판매?

A : 예

Q : 그러면 메역은 열, 스무개(20개)가 ᄒᆞᆫ

A : 키로수가

B : 아니 아니. 경 안해수다

A : 키로(kg)로. ᄒᆞᆫ칭

B : 그냥 단으로 이추룩 낭으로 부쳥. 그거 허영 그자 단체 했다그네 그자 무데기로 떠그네 그자

Q : 아, 무데기로?

B : 예. 무데기로 떠

Q : 스무개(20개) 놔가지고 ᄒᆞᆫ

A : 거는 아녀

Q : 그런거는 없고

A : 녜

B : 한짐(1짐)이고 두짐(2짐)이고 지어다 노민 그자 무데기로 들르는 저울로 떤에 경핸

A : 거난 것도

B : 칭으로 멫칭, 두칭(2칭), 세칭(3칭)

Q : 것도 강 바당에 ᄌᆞ물 땐 해녀분이 허주마는 육지 온 때는 다시 시구덜 도와줄 거 아니?

A : 예게. 식구 잇이민 ᄀᆞ찌 널어주고, 강 메역 행 오민 강 져옴[39]도,

---

33) 차붑니다 : 차가웁니다
34) 졸아 : 잘아 => 졸다 : 잘다. 자잘하다
35) 큰년 : 큰딸
36) 터비어 : 떠
37) 궂인물 : 궂은 물. 여기서는 출산 후 나오는 분비물인 오로를 말함
38) 사레 : 사러

B : 마줌[40] 강 다 지어다주고
A : 이녁 ᄌᆞ문거양, 이녁대로 다 해오젠 허민 어떵 다 해옵니까? 집이 식구가 잇이민 강 다 마중도 해주고
Q : 음, 마중 해주고
A : 예. 게난 그때 메역, 왜정 때난에 돈 엇이난 메역 ᄌᆞ물아 나민 배고프지 안헙니까? 게민 빵장시들이 빵을 풀레[41] 막 가. 고동, 이 저 메역허치 할 때. 거믄 메역을 ᄒᆞᆫ낭(1낭), 두 낭(2낭)씩 주멍 그 빵을 사먹으멍 해수다.
B : 진빵
Q : 아, 메역으로?
A : 예. 찐빵
B : 찐빵 요만씩헌 거
A : 허허허
B : 옛날엔 찐빵 해영헌 거, 그거 하나 메역 ᄒᆞᆫ낭 큰 거 앗앙가민[42] 빵 하나 줘
Q : 허치가 물찌에 따라그네, 거믄 한 삼월(3월) 보름. 아니, 삼월(3월) 멪일 뭐 경해그네, 삼월달(3월달)부터 메역헐 거 마씸?
B : 그쯤 되실 거우다
A : 예. 삼월(3월) 한 보름 넘어가민 주로 사월달(4월달)에 많이 해신디 삼월 보름 넘어가민 저, 거시기 메역허챈 해가수다.
B : 추워노난 속곳입고
A : 그땐게 고무옷 엇이난
B : 해부난에 물이 너무 차붐으로 좀 ᄒᆞ쏠 물 풀어져가사
Q : 경 사월달(4월잘) 쯤에 해서 오월달(5월달) 해영, 경해도 멪일 헐 철이꽈. 전, 전에 ᄒᆞᆫ 일주일 해질 건가?
A : 일주일 더 해집니다게. 저예. 막끝[43]엔 허치를 날을 졍 허당 나중엔 개인으로 냉 터비어. 내불민 가그네 이녁대로[44] 가그네 행 져오곡 허멍 나중엔 막물될 땐 경해수다.
Q : 거믄 그 막물되기 전에는 똑같이 해가지고 팔아그네 돈을 나눌 거?
A : 아니 아니
B : 자기헌 거, 자기
A : 이녁헌 거, 이녁이 오라그네 이녁대로 다 말령, 메역도 잘 붙여노민 사가는 사람도 팔기도 쉬와. 경헌디 잘못 붙여그네 이리저리 해노민 이 사가는 사름이 메역 궂다 좋다 허멍 타박을 해. 당신네도 강 풀아살 거난 강. 낭으로 그사름들은 행 강 풀암실 거우다게. 우린 키로(kg)로 떵 풀았주마는. 경허난에 잘 붙여야. 이 잘 붙여야 메역 풀아먹음도 쉽곡, 이제 해수다
Q : 그 메역작업이 양식미역 허멍 그거 지금 작업을 안 허게 됨잖아예?
A : 예
B : 예. 시세가 엇언. 옛날에는 메역 돈이 얼마나 첨 많이 사수과마는 양식이 하영 나부난에

39) 져옴 : 지고 옴
40) 마줌 : 마중
41) 풀레 : 팔러
42) 앗앙가민 : 가지고 가면
43) 막끝 : 맨 나중. 맨 끝
44) 이녁대로 : 자기대로

메역 시세가 엇어져부난
Q : 요즘 같으믄 그 메역 시기에 우미
A : 요샌 우미
B : 바당에
A : 괜잖암수다
B : 우리 바당엔 우미가 잘 엇어
A : 경헌디 우미가 엇어
B : 엇어마씀
Q : 엇어?
A : 예
B : 저레
Q : 음, 구좌쪽이나
A : 예 구좌 농더레
B : 멫백만원
Q : 종다리 저레 시흥리더렌
B : 소서농더레
A : 우미 하영덜 메고
B : 그렌 막 몇백만원씩
Q : 그 메역 끝나면 무신 거 헐 철이꽈? 헛무레도 아니고
B : 소라. 소라도 잡고, 전복도 잡고
Q : 소라는 그 전에 해야 될 거 아닌가?
B : 아니
A : 아니. 그 메역 해둬그네양
B : 소라잡곡 그자 전복. 그때 옛날에 전복 하난, 허난 전복 두개(2개)도 잡으고
Q : 오분자기영예?
A : 예
Q : 오분자기는 뭐 호멩이로?
B : 예
Q : 이렇게 확 허게 뭐 햄수과?
B : 고망[45]에 잇어부난. 영 헌 고망에 잇입니께, 오분자기. 영허믄 문지강도 트곡, 영 보이민 도 트곡, 잰잰헌 고망에 죽헌디 다 박아전
Q : 거난 요즘은 오분자기 하영 남덴 허멍 헙디다
B : 예. 남신디 요샌 또 안 받암수다
A : 안 받암수다
Q : 무사 안 받아줘신고
A : 무사 안 받아줘시니 험은
B : 양식 전복
A : 전복이 헐허부난[46] 오분자길 경 비싸게 사먹젠 햄수과게. 거난양
Q : 몰람실 거우다게

45) 고망 : 구멍
46) 헐허부난 : 값이 싸기때문에

B : 오분자기가 영양가도 있고 맛이 신디
A : 양. 육천(6천), 육만(6만), 키로(kg)에 육만(6만)원만 가던 것이 사만원(4만원)으로 ᄂᆞ려와도양 이젠 안 사감수게. 전복이 헐해부난.
B : 양식전복 삼만(3만) 얼마씩
A : 이만(2만) 얼마씩
B : 키로에 해노난에 그 전복덜 뚝배기에도 그 전복 들어감으로 오분자기 시세가 엇언에. 전복, 양식전복 안 날 때는 오분자기 잘도 시세 좋아나수다게.
A : 메역허기 전엔 물이 차부왕양 그땐게 그냥 광목으로 물적삼 멘글고 속곳 입고 헐 때난 물에 들민 진짜 와지직 와지직 허영, ᄒᆞ루엔 가민 지들커 막 검질이영 낭이영 봉가당 놔그네 불턱에서 세번씩 들엇어. ᄒᆞ루에 가민. 강 들어강 얼민 나곡,
B : 해섬
A : 거난
B : 메역허기 전이 해섬 저 해섬 많이 잡아수다
A : 해섬 잡아수게 해섬. 홍삼
Q : 해삼은 어떤 데 잇어마씸?
A : 이런
B : 돌 아래도 있고
A : 해섬은양
B : 눈이 많이 왕 추운 때는
A : 깨끗헌디보다
B : 밖에 다 나왕 누워그네
A : 좀 어지러운 데가 잇어, 해섬은
B : 베끗디 나 누왕 잇일 때도 있곡,
A : 이런 무시에
B : 돌 일르민 돌 밑에도 있고
A : 등돌지거리에 잇일때나
Q : 아, 좀 더러운데예
A : 예. 좀 어지러운데가 해섬은 납니다게. 이런 모살 있는데, 저 머흘광 모살 사이에 그런디, 나는 때는
Q : 해삼은 많이 잡으면은 멫키로 정도씩?
A : 지금 그때 비교는 못 허쿠다마는 지금은예 다 해섬철엔 해섬잡젠 다 허영 허는 따문에 강 ᄉᆞ망일민[47]게 여남은키로씩 잡읍니다게. 잡주마는 거 몇키로 잡는다는 기준은 엇어도 간게 한 오키로(5kg), 하영 잡는 사름은 십키로(10kg), 십오키로(15kg)꼬지 잡아다그네 잡아오는 아이덜은 잡아옵니다.
Q : 그건 먼 바당에 잇우과?
A : 짚은 디 거는 훍어. 또 ᄀᆞᆺ 디 건 이제 좀 ᄌᆞᆯ고. 경해도게 야네고치 물질 허는 아이덜은 짚은 디 허는 아이덜은 짚은 디 강 잡고, 우리고치 이제 짚은 디 못 허는 사름은 좀 얕은 디서 잡고
Q : 순덕이 언니, 그 물질 처음 들어가면 어떤 포인트를 잡아그네 어떵 작업햄수과?
B : 아이, 처음엔 그자 눈 써그네게 사둠서 영 영 눈질레기허멍 그자 퐁당퐁당 해가는게 그게

47) ᄉᆞ망일민 : 행운이 생기면, 어떤 일이 마음 같이 다행스럽게 잘 되면

그자 ᄎᄎᄎᄎ 허는게 물질 배운 것이 어떵 배와진 중은 몰라마씀. 그자 허면서

Q : 아니, 이제 물에 들면

B : 지금?

Q : 응, 어느 물에 가가지고

B : 어디 가면 어느 발라[48]가면 소라 많이 나는 여가 잇어마씀. 게민 항상 그딘 강 보민 소라 있곡, 해섬도 많이 나는 디가 있고, 다 그추룩 헌 디 강 작업헙니께.

Q : 여기 바당에 여가 여러개들 있잖아예.

B : 예 예

Q : 어떤 바당은 해삼이 많이 나고, 어떤 바당은

B : 해삼은 뭐 요 세개바당엔 헌 디, 요 삼바리 있는데, 등대 있는 디가 주로 해섬 많이 나고, 요 오등애엔 헌 디, 요 섭지코지더레 가는 디가 또 해섬 많이 납니다게. 오분재기도 거기가 많이 나고, 예, 보통 해섬 많이 잡젠허민 거기 가곡, 또 세개바당에도 해섬 많이 날 때 거기도 가민 잡아질 걸로 알고, 저 곰들래긴가 보름알도 가면은 또 짚은 디, 거기 모래밭디 있는 디 가민 해섬 많이 납니다게

Q : 전복이 많이 나는 데가

B : 전복은 이젠 엇어부난 옛날에는

Q : 옛날 말고

B : 전복 많이 난 때는 뭐 요 나백여 오등애도 가면은, 전복 터난 디 가면 막 잇일 걸로 알아그네, 그자 그 옛날에 우리 처녀 때 정도는 막 전복이 이디도 착, 이디도 착 물아래 올라오당 보민 저디 탁 붙은 거 베려정 올라왕 강 트곡 막 경허멍 해나신디 이젠양 하늘에 별 땅이라마씀. 전복이 진짜 엇우다.

Q : 구젱기는 다 많고

B : 예. 구젱기는 그자 가민 뭐 구젱기 잡을 때 나면은 구젱기는 가민 어딘 가민 잇일 것이다 해영 그자 가민게 ᄒᆞᆫ 칠팔십키로(7,80kg)게

Q : 그 구젱기 잡는 얘기 좀 해줍서

B : 구젱기 잡는 얘기, 허허허, 가민게

Q : 소들락 소들락 잇인덴 허멍양?

B : 아니, 소들락 소들락 어떤 때 가면 막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막 ᄒᆞᆫ 숨에 가민 한 짚은 디 가도 일곱여덟개(7,8개) 이추룩 훍은 거 영영 잡앙 요레 두개 잡고, 봐지민 물아래 강 뎅기멍 요레 요렇게 영영 담아놔그네 또 요쪽 손에 잇인 때는 요쪽 손에 두개(2개), 세개(3개)꼬지 심엉 이렇게 해서 올라올 때는 일곱여덟개(7,8개)도 가져와지곡, 또 엇는 디는 또 펀찍 엇이, 빈 숨 허영 올라올 때고 있고, 어떨 때는 뭐 일곱여덟개(7,8개), 다섯개(5개)도 앗앙 오고 헙니다. 경헐 때는 기분 좋고 물아래 강 소라 멪개 심엉 올 때는 물숨도 막 나고, 기분도 좋고, 또 안보여가민 숨도 더 바쁘고,

Q : 지치고예

B : 지치고 힘들고 그추룩 헙니다게. 경 많이 잡을 땐 기분도 좋고

Q : 여기는 우미 안 나고 허니까 이제 구젱기

B : 예. 주로 구젱기, 해섬, 성게

Q : 문어 구멍은 많이 알고 계시죠?

---

48) 발라 : 갯끗. 바르. 갯곳. 물 가까운 바닷가로 밀물과 썰물에 따라 물에 잠기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는 바다 밭. 주로 썰물 때 해산물을 잡을 수 있는 곳

B : 예, 예. 문어는 이 언니가 많이 잘 잡는 어른이우다
A : 히히
Q : 문어 잡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
A : 히히히히, 문어허고 고기 잡는 거는 가오리 같은 거, 광어 같은 거, 고기 쏩는 거는
B : 문어 사는 디가 알아져마씀. 영 헌디 문어가 앗은 멧[49]이 잇어마씀. 문어 영 잡는 멧이. 구멍이 영 알아져그네. 잘 잡읍니다.
Q : 구멍이 한 몇개정도 됨수과? 문어가 있는 구멍
B : 합니다
A : 구멍은예.
Q : 오십개(50개)정도 됩니
B : 오십개(50개)만 됩니까게. 그걸 다 어떵 셉니까
A : 그걸 다 찾아졈수과? 뭐 영 다니다 보면 문어 다녀난 딘 알아저. 자갈이 헤뜩헤뜩그 문어 발로 붙어다그네 저 붙여다그네 멧을 짓어난 것이양. 문어 다녀난 딘 좀 알아집니다.
B : 나가분디 보민 또 영 파졍 앚았당 나가분 디도 있고
Q : 문어 잡으면은 그냥 바로 집어넣을 수 없지예? 막 붙어가지고
A : 아, 거난 그거 막 죽여그네 집어놈수게. 호멩이로 눈광 눈 코새에 꽉 찔러그네 그걸 어느 정도 기절 좀 허다시피 해놔사 정신을 못 ᄎᆞ령 못 나오주.
B : 경안허민 도망헙니께
A : 돌아나비어
B : 따까리 이런 디로 나오라불어가지고
Q : 문어 이렇게 데쓰는 건 안하고
A : 예. 데쓰진 안헙니다.
B : 나는 잡아지민 상퉁이 뒈싸붑니다[50]. 도망가지 못허게. 상퉁이 뒈쓰고, 눈두새 눈두새 요런디 꼭 찔르곡, 니빨, 이 니빨을 빠붸사, 살아가지 못허게, 제일로 목적은 이 니빨 경허영 빠그네 죽여붑니께
A : 메, 아니 문어를 아무것도 목숨이 잇일 때 밖으로 나와야 보기도 좋고 이 죽어불민 헤영 허주 문어가. 경허주마는 이런 막 죽여불지 말앙 어느정도 해여그네 정신 못 출리게만 해놩 놔둬야 색깔이 좋아
B : 아니, 경헌 문어엔 돈 안줘시민 허주마는 무신
A : 색깔이 좋고
B : 봉달이 담아왕 뜨민 같은 값이난 뭐 돌아나지 못허게 죽여부는게 제일이주
A : 야, 니껍이영 이빨이영 다 빨 순 엇어. 난
B : 다 빠붑니다. 니빨 빠불고 눈도 제 찔러불곡 허여
Q2 : 이빨?
A : 옛날에
B : 어떤데 허다보민 막 돌아나비어
A : 그 전복은 많이 잇일 땐 옛날에 콕테왁. 지금은 버거기테왁을 허는디, 옛날엔 그 지붕위에 올령, 그 콕박새기 그거 헐 때는 그거 행 테왁을 행 강 저 고랑지기 강 보민 그 땐양 전복이 진짜 이만씩 헌 것이 이레착 저레착 붙엉 나 망사리로 저 전복이영 소라영 잡앙

49) 멧 : 쥐가 구멍을 파면서 밖으로 꺼내 쌓아놓은 흙
50) 뒈쓰다 : 뒤집다

골라 앉게시리 콕테왁 ᄀᆞᆯ라앚게시리[51] 잡아나수다.

Q : 그 저

B : 아이고, 옛날에

Q : 그 작업할 때에 콕테왁이 이제 부숴지거나 허믄 이런 때 어떵헙니까?

A : 그냥 부숴지민 그날 물질도 못허고게 망사리 경헌따문에 이제 그것이 부숴지는 거는 물에서, 물에서 부숴지는 것이 아니고, ᄀᆞᆺ디서 뚜러멩 가당 탁 엎으러지나 어떵어떵 놨당 메다 쳐불때는게 깨질 때도 있곡 허주마는, 이제 그 때에 저 콕테왁 헐 때는 하영을 잡아져수과게. ᄀᆞᆯ라앚앙, ᄀᆞᆯ라앚앙 해신디, 지금은 버그기로 해부난에 테왁에 염려는 없주게. 이거 무신 ᄀᆞᆯ라앚지 안허주 해그네. 해도 ᄀᆞᆯ라앚아도 짐은 무거워도 밑에 강 앚았당이라도 강 영 일러 세우민 으깍허게 올라와 콕테왁은.

Q : 물소중이

A : 저 거시기 스폰지

Q : 응, 스폰지는. 물소중이 입을 때는 한번(1번) 물에 들어가믄 거믄 정확허게는 알 수 없지마는 ᄒᆞᆫ시간정도 작업햄수과?

A : ᄒᆞᆫ시간 못허여

B : ᄒᆞᆫ시간 못살아. 추원

A : ᄒᆞᆫ 삼십분(30분) 해그네 나그네 불 추와그네 또 들어가고, 세번(3번)씩 든덴 허난. 물에덜 ᄒᆞ루에

Q : 아, 경허영 세번(3번). 경해도 시간은 한시간(1시간) 반밖에 안됨수게

B : 그 땐 물건도 하나수게

A : 거난에양 그땐 물건이 그대로 잇어나수게. 강 퍼뜩 들어도 소라를, 이제 그때 미망사리[52], 미 망사리로 핸에 물질을 해서. 게민 가민 퍼뜩허민 그자 주작주작 소라가 나난양 퍼뜩 잡아도 ᄒᆞᆫ망사리 잡아오곡, 경해나수다

Q : 경허영 세번을 허는거다양

A : 응 경해도 그땐 계통판매가 엇어서. 그걸 우리 물질 배울 땐 그 잡았당 ᄉᆞᆲ아[53] 저 성산포 ᄁᆞ지 간스메[54] 허는 데꼬지 지엉 강 풀곡 해수다. 지금은 계통판매 허난에

B : 경허고 이제는 닻 놩, 옛날에는 물 따랑 테왁가는 양 물건이 전복이 잇어도 그 전복을 ᄒᆞᆫ숨에 못허면은 두렁박이 저만이 떠나불민 그 전복 못행 내불 때가 하나수게게. 경헌디 이제는 닻을 돌 조락 만들앙 닻을 놩 허는 덕분에 물건이 그디로 ᄒᆞᆫ자리(1자리) 숨비민 물건이 씨가 엇이게 잡아붐수게게.

Q2 : 옛날엔 닻 아니해나수과?

B : 옛날엔 닻 아니해부난 ᄒᆞᆫ번(1번) 숨비어 나당 물 숨끝에 전복을 보민 테왁이 저만이 가민 그 테왁을 심엉 오다보민 그 전복 잇인 걸 ᄎᆞᆺ지 못했주마는 요즘에는 닻을 딱 놩 잇이는 덕분에 올라와도 그 물건을 본 물건은 다 잡음으로 물건이 더 씨가 지왐수게. 옛날에사 경해서

A : 고무옷 입언 물에 오래도 살아불고게

B : 아, 물에도 네시간(4시간), 네시간(4시간)

---

51) ᄀᆞᆯ라앚게시리 : 가라앉을 정도

52) 미망사리 : 억새의 부드러운 속잎을 엮어 만든 망사리

53) ᄉᆞᆲ아 : 삶아

54) 간스메 : 통조림

A : 우린 아침에 일곱시(7시)에 가민 오후 흔 두시(2시)되사 나곡